

# 주관 충현

충현교회의 사목적비시 강금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 제3차 청지기 훈련, 10월 27일 금요일 집회 시 “청지기 훈련은 바로 당신을 위한 은총의 자리입니다!”

### 구원에 이르는 수치 (시 83:16)

청지기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입니다(벧전 4:10).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귀한 직분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벧전 2:9). 그런데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신이 복음의 은총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진실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단순한 '죄의식'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일 우리 각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자신이 죄인임을 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수치’(시 83:16)로 얼굴을 덮어야 합니다. 이처럼 ‘수치’로 얼굴을 덮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은총을 구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은총의 자녀가 됩니다(요일 3:10). 이 은총의 자리가 이제 곧 펼쳐집니다. 10월 27일(금요일), 제3차 청지기 훈련! 바로 당신을 위한 은총의 자리입니다(히 4:16).

## 제39대 피택장로 주제발표, “열두 제자”

이번 주, 금요일집회(20일) 저녁 7시

창로로 피택되신 여섯 분의 마음에는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택장로님들이 그동안의 모든 훈련에 성실히 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했기에 가능했습니다(마 16:24). 매순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어느 순간에 보혈의 은총이 피택장로님들의 심령을 가득 채웠습니다(롬 5:1).

특히 지난 6개월 이상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한 주제 발표를 통해서 피택장로님들은 더욱 깨졌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눅 5:8).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피택장로님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금요일집회에 있을 주제발표는 성경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죄인임을 공표하는 시간이며, 죄인조차도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십자가의 은총을 증거하는 회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엡 3:7).

\*주제발표 요약은 본지 5면에 있습니다.

## 크리스마스 메시지⑥ (금요일집회)

## 기도하는 다니엘

다니엘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 중 가장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신 반면 참 인간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B.C. 605년 예루살렘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총명하고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다(단 1:4). 이는 저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편으로 만들고 또 저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실존하는 신적 존재로 있었다. 그러나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젊은이들은 어떠한 회생이 있더라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규례를 그대로 믿고 행할 것이라고 도전하였다(단 1:8).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몸과 영혼이 하나로 만들어졌으며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속함을 받고 예수의 제물이실 때 그 일에 서야하는 존재임을 믿고 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론화시킬 때 우리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니엘은 진정으로 그가 해야 할 것들을 행하였다. 음식의 문제로 야채와 고기를 놓고 간단한 논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나 여기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다(단 1:12,13). 즉, “나는 당신의 문화와 전통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헌신은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다니엘의 헌신의 투쟁은 이후에 다리오 왕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큰 시험을 견디야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단 6:3,4).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왕을 공식적인 그 나라의 신으로 섬겼을 때 그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할 수 없다고 왕을 부추겨서 공포하게 만들었다(단 6:7,8). 그러나 다니엘은 전과 다름없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단 6:10).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미워하는 자들이 원했던 것이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진 날, 다리오 왕 자신도 힘든 밤을 지냈다(단 6:18). 동이 트자 왕은 사자 굴을 향하여 달려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단 6:20-22). 놀랍게도 다니엘은 왕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다리오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하였다(단 6:25-27). 위험이 몰아칠 때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기억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은 곧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권이 있으심을 알게 해 주신다(약 1:12). 이처럼 다니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였다(시 32:7).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로 옮겨져서 포로된 자의 삶을 기록한 책으로서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기록이다. 예언의 말씀이 나타날 때마다 다니엘은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모든 영광을 철저히 하나님께 돌렸다(단 2:28).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첫 예언은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단 2:37).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한다(단 4:25). 이 땅 위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누구에게나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이다. 느부갓네살은 미지팡이에서 정신이 돌아와 깨자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알지 못하였다(단 4:34). 이 시점에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증거하는 것으로부터 메시아와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환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첫 번째 주제는 뒤엎을 위한 일종의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 다니엘의 충성심이 시련을 통하여 확인된 후에 다니엘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감지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첫 번째 환상은 다니엘 7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환상은 메시아가 오실 550년 후의 일과 또 그 후에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일들을 좀더 자세히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다(단 7:13). 이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자 같은 이가 나아오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께서 친히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에 쓰시던 용어이다. 그의 통치는 허수아비 같이 덧없는 이 땅 위의 왕국이 아니다(단 7:14). 다니엘의 환상은 메시아가 오실 기대로 끝이 나는 것이다. 다니엘이 마음에 너무 고민하므로 천사 가브리엘이 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나타났다(단 9:22,23). 이번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기쁨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도착하는 것과 십자가에 대해 듣게 된다(단 9:25,26). 이 소식을 듣고 난 후 처음에는 희망을 잃고 곧 이 슬픔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단 10:2,3). 그러나 천사의 소식은 은총의 소식이었다(단 10:18,19).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라는 은총의 음성이 들린다. 다니엘에게 천성의 눈이 있었다라면 기쁨 부은 자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이다. 다니엘의 삶은 그 책에 기록된 것처럼 마침내는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칼렐루야” 찬송과 기쁨으로 풍성하였다. 우리들은 이 기쁨을 발견하기 전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기도하는 다니엘은 천사가 떠나면서 주는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단 12:2,3).

# PLENTIFUL HARVEST

*<sup>(1)</sup> Now after this the Lord appointed seventy others, and sent them in pairs ahead of Him to every city and place where He Himself was going to come. <sup>(2)</sup> And He was saying to them,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beseech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sup>(3)</sup> "Go; behold, I send you out as lambs in the midst of wolves. (Luke 10:1~3)*

When Jesus appointed seventy disciples to go in pairs ahead of Him to every city and place where He Himself was going to come, He told them,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laborers are few; therefore beseech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Go; behold, I send you out as lambs in the midst of wolves"(vv. 2&3). Jesus chose specific people to send to specific places. Often times Christians think that Jesus just asks them to go anywhere, but that is simply not true. He chooses certain people for certain places.

Jesus is concerned about every single soul. He looks for those who need the gospel. He asks Christians to be concerned for human souls also, but most of them really are not. They are more concerned with public appearances and private matters. Indeed, the seriousness of a plentiful harvest with few laborers is a remote idea in this 21st century. Few implore the Lord on such significant matters, even though He asks you too. The Lord God says that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2 Chr. 7:14). Many lands need healing, but without the harvest workers they remain in sin.

What is the harvest? The harvest is human beings and "the field is the world"(Mt. 13:38). The world is broken down into many nations, filled with millions upon millions of people, and not even half of them have heard the gospel because of the lack of laborers. Jesus asks that you pray for laborers. He does not just look for lost souls; He also looks for laborers. He looks for laborers who have the kind of attitude described in Psalm 126:5&6,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with joyful shouting. He who goes to and fro weeping, carrying his bag of seed, shall indeed come again with a shout of joy, bringing his sheaves with him." Do you have this attitude? Nowadays people go to church, proclaiming to love Jesus, but very few actually listen to Him. Our 21st century churches have few laborers!

Christians are laborers. As a laborer, you cannot go your own way. Jesus must send you, and you must go voluntarily, not forcibly. Jesus prayed, "As You sent Me into the world, I also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Jn. 17:18). Jesus knows everything, so that if you listen to Him everything will work out wonderfully. The problem is that most churchgoers do not listen to Jesus. Instead, they want Jesus to listen to them. John the Baptist was a man sent from God(Jn. 1:6), and if you are a Christian, then you are a man or woman sent by Jesus. You cannot go out into the world with your own selfish motives. Jesus uses His Holy Spirit to lead and guide you. When Jesus' disciples were ministering to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Then, when they had fasted and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they sent them away"(Acts 13:2&3). Remember when an angel of the Lord spoke to Philip saying, "Get up and go south to the road that descends from Jerusalem to Gaza"(Acts 8:26). Laborers have to go out by the way of the Holy Spirit.

Laborers are people who love souls. Their heart burns for the salvation of others. Jesus loves you. He died for you. You need that cross in your heart in

order to love others. John 4:35 says, "Do you not say, 'There are yet four months, and then comes the harvest?' Behold, I say to you, lift up your eyes and look on the fields, that they are white for harvest." Most of today's Christians do not think that it is harvest time. Those who do realize there is a harvest do not think God gives them the opportunity, claiming they cannot find the time. This is pure nonsense! Please open your spiritual eyes and see how plentiful the harvest is.

Everyone knows that when the harvest is ready you cannot delay. When the apple trees are ripe, if you do not pick the apples they will fall to the ground and rot. Harvest time means everything must be harvested or spoil. It is a very busy time, with no room for playing or being idle. The Lord needs every hand and every laborer's brow will sweat because there is no time to waste. The harvest is plentiful right now. Souls are dropping and Jesus is calling for you to go, but you keep telling Him you are tired or busy. If you listen to Him, there is a reward. Psalm 30:5 says, "For His anger is but for a moment, His favor is for a lifetime; weeping may last for the night, but a shout of joy comes in the morning." You have to be tough so that you can have a good harvest. We are standing on holy ground and Jesus is talking to us. His Holy Spirit is telling us where to go and to whom, if only we listen. If we are humble, denying ourselves, Jesus will explain what we need to know. The problem is that we are too busy with our own stuff. Listen people, we are living on His property. He has taught us His method of living, every principle we need to know, and He asks us to go, go, go and live the life He has called us to live.

Jesus told the seventy disciples, "Whatever house you enter, first say, 'Peace be to this house.' If a man of peace is there, your peace will rest on him; but if not, it will return to you. Stay in that house, eating and drinking what they give you; for the laborer is worthy of his wages. Do not keep moving from house to house. Whatever city you enter and they receive you, eat what is set before you; and heal those in it who are sick, and say to them,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to you.' But whatever city you enter and they do not receive you, go out into its streets and say, 'Even the dust of your city which clings to our feet we wipe off in protest against you; yet be sure of this, that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Lk. 10:5-11).

When the seventy returned, they returned with great happiness. They had a good harvest. Jesus said to them, "Nevertheless do not rejoice in this, that the spirits are subject to you,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recorded in heaven"(Lk. 10:20). What a great reward! I have been with this church for about nine years now. When I first came, the elders told me that we had about 7,000 people who tithed, and I told them I wanted to send out 7,000 missionaries. No one really believed me, and I am sure several thought I was crazy, but after nine years, we have already sent out 8,500 laborers. This is a blessing, but the harvest is still plentiful. The world needs to hear the gospel, and our church needs to preach the gospel to all who would hear. Real believers, those who are actually going to heaven because their names are written there, not people who just say they are Christians, are few in number, so please pray for the Lord to send out more laborers. Amen. 🙏

## 다움 주일 설교

# 풍성한 추수

① 이 후에 주께서 달리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종 각처로 돌씩 앞서 보내시며

②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③ 갈지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누가복음 10:1~3)



김성환 목사

예수님은 칠십 인을 세워 자신이 가시려는 각종 각처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2,3절). 예수님은 특정한 장소로 보내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장소에 상관없이 단지 어디로든지 가는 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특별한 장소에 갈 특별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 추수할 것은 많되

예수님은 모든 개개인의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실제로 그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국제 정세나 개인적인 일에 더 쏠려 있습니다. 사실 21세기에 있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진 사고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셨는데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하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제라”(여호 7:14).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이 고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면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 일꾼이 적으니

무엇을 거두어야 합니까? 추수할 곡식은 사람들이며 밭은 세상을 가리킵니다(마 13:38).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곳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절반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꾼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이라도 영혼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일할 일꾼들을 또한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시편 126:5,6에 묘사된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21세기의 교회에서는 할 일꾼들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자원하는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이 일꾼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보낼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은 억지로 갈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만 한다면 모든 일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요 1:6). 이처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이끄시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나와 사울을 따로 제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2,3). 하나님의 사자가 밀밭에 갈 밭을 갈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행 8:26). 일꾼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 영혼을 향한 사랑

일꾼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심장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35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네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 오늘 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들도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모순입니다. 반드시 영의 눈을 떠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 지금 나아가라

추수할 때가 이르렀 더 이상 추수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파라 일을 때 재빨리 따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썩고 맵니다. 추수기라는 말은 모든 것을 거두지 않으면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매우 바쁜 때입니다. 그러므로 늦거나 빈둥 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일손을 필요로 하고 일꾼들은 밭을 흘리며 일해야 합니다. 남방할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지금 당장 추수해야 할 곡식들이 가득 합니다.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상급이 있습니다. 시편 30:5는 말씀합니다. “그 노역은 잠간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지극없는 울음이 기속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의 성령이 어디로, 또 누구에게 가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일로 너무 바쁘다는 게 문제입니다.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소유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만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가라, 가라, 가라고 명하시며,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예수님은 칠십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한집이여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있으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값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고치고 또 영접하기를 하라나의 나라가 너희에게로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려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눅 10:5-11).

칠십 명의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추수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 이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제가 천국교회에 온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십일조를 바치는 교인수가 칠천 명이었는데 장로님들의 말을 듣고 저는 칠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다. 몇 번이나 저 자신도 그 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보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미 8,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추수할 곡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전국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

##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 교회 (엡 2:19-22)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위한 모든 대속을 이루셨다. 특히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엡 2:1,3).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엡 2:5). 더군다나 우리들은 유대인이 아니기에 완전히 소망이 없는 외인이었다(엡 2:12).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이처럼 소망이 전혀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엡 2:13).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셨다(엡 2:14-18).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엡 2:19-22)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터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기 초**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닦아 둔 돌 외에 놓다 다른 터를 닦아 돌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전 3:11).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목 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될 때 교회의 목적은 매우 분명해진다.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마 28:18-20).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어야 한다. 세상의 축복만을 외치고, 교회를 외세적인 권력으로 치장하여 교회의 위상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온 천하에 다비다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마 16:15, 26).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한 목적이 분명한 교회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회개’였다(마 3:2, 4:17). 또한 베드로의 첫 메시지도 ‘회개’였다(행 2:38,39).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들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관한 메시지들로 가득차지 않은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 받았다고(4:11,12).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삶을 위한 메시지에만 귀를 세우고 있지 않은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에서의 예배** 보자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였다. 하나님은 단상과 제물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그래서 거인과 아벨은 각자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였다(창 4:3-5). 여기서 거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아벨은 회개의 메시지를 100년이나 넘게 전하였다. 그

러나 모든 사람들은 은총의 메시지를 외면하였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만이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유능은 그들을 축복하셨다(창 8:20, 9:1).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회생을 통해서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담은 뱀에게 세워진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을 믿으며 십일조에 대해 사약하고 있다(창 28:22). 십일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에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십일조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전부를 드린다는 표현이다. 따라서 말라기 선지자는 온전한 십일조를 할 것을 전하며, 온전한 십일조를 하지 않을 때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말 3:8-10).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형식과 외식이 아닌가? 진실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자.

**신약의 봉헌을 보자** 예수님은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마 23:23). 진정한 경배를 요구하고 있다. “얼마나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과부가 드렸던 소액의 예물을 왜 귀중히 여기셨는가? 제자들을 일부러 부르시면서까지 강조하셨는가? 예수님은 한금의 문제를 아닌 진정한 헌신으로 보았기 때문이다(마 12:41,43). 주님은 우리에게 드리는 물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몸을 새 선물로 드리는 새 제사를 원하셨다. 진실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물질의 문제로 고민하지 말라!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한다(행 4:32,34,35).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자**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은 믿음이 필요한 불문과 좁은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신의 지식, 경험, 노력이나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요청된다(계 12:2). 정성을 내어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물질의 십일조 뿐만 아니라 시간과 삶의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고전 16:1,2).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원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마 6:33). 가장 먼저 자신을 주님께 전부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고후 8:3,5,12,9:6,7). 백 살이 넘는 과부 안나를 보라(눅 2:36). 그녀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영원을 소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눅 2:37). 오랜 세월 메시지를 기다렸으며 결국 만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는(눅 2:38). 늙은 과부 선지자 안나는 자신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였던 은총의 사람이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가? 자신을 자랑하며,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있다.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 “주님의 도구로 개조하시. 십자가가 아니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항상 온 새 선물 주님께 바치려 사랑의 주 내 주님께”(찬 346장).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은총으로 풍성한 소망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 39:7)



정선연 (영로 소망부장)

주일 3부 예배를 은혜 중에 마친 후에 우의 약식을 찾아 만나홀로 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때가 바로 점심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소망부 어르신들은 만나홀을 뒤로 하고 반드시 둘러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매주월 12시 15분 이면 소망부 집회가 시작되는 갈릴라아입니다. 일흔을 넘기신 어르신이면 모두 참석하여야 하는 소망부 집회에는 매주 50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석하는 뜨거운 복을 통한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소망부를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어르신들은 자식처럼, 건강자랑 등 이 땅의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유난히 궂은 날이면 참석하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의 아쉬움도 없지 않으나 양지러져 나이가 지라는 것이 힘을 정도의 노후를 이롭고 이제 청년이 된 손자 손녀, 머리가 허연 딸과 며느리 손에 의지하여 고집스럽게 소망부에 참석하시며 하늘을 소망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었

기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은 지난 신앙의 경험과 연륜을 내세우기보다는 예수님께만 전적으로 순종하고서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하나님에 일 에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는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결코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흡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사 14:12). 젊은 사람들도 매우일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소망부의 어르신들은 이른 시간부터 나이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돕는 소망부 찬양대의 찬양은 구구한 주님을 향한 하늘의 소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실을 넘기신 고령의 연세이기에 하루 종일을 교회에서 계신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 이지만 정기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수련회와 같은 말씀의 잔치는 누구 하나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망부에는 다른 젊은이 부서 못지않은 뜨거운 열과 열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보면서 소망부에서 봉사하는 오십여 분의 선행님들은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이 단순히 봉사의 직분이 아니라 십자가 은총을 체험 하는 직분임을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소망부의 일꾼들과 남은 여생을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어든지 부끄 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 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빌 1:20).

## 제39대 피택장로 주재발표

## 제39대 피택장로 주재발표

## 열두제자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행하실 때 죄인들을 부르시어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열두 제자들이다(마 10:2-4).

이들은 모두 다 악한 죄인들이었으나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 세워졌고 빛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도구들이 되었다.

**1.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첫 제자가 시몬 베드로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 가셨고 고기 잡는 기적을 통해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눅 5:8 ; 마 4:18,19).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다(눅 5:11).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더욱 더 깨어져야 하는 죄인이었다(마 16:23 ; 마 26:74).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켰다(마 26:75). 예수님께서도 회개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고 참된 목자로 세우셨다(요 21:17). 죄인 베드로는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되었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었다. 또한 그는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하였다.

**2. 안드레** 안드레는 갈릴리 어부로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마 4:18 ; 요 1:39,40).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부르셨고 그는 순종하여 제자가 되었다(마 1:16-18).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마 16:24).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그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였다(요 1:41,42, 12:20-22). 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줄 알았고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 만족할 줄 아는 제자였다.

**3.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서 어부이며 사도 요한의 형이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열두 제자 중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사역했다(마 4:21,22, 17:1). 그러나 그는 거칠고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마 3:17). 또한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악한 자였다(눅 9:54 ; 마 10:35-37).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를 새롭게 빚으셨다(마 20:26-28). 마귀는 그의 거칠고 급한 기질을 악하게 이용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의 그런 기질을 선하게 사용하셨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헌신했으며 열두 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하였다(행 12:1,2).

**4. 요한** 요한은 갈릴리에서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다(마 1:19,20).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며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빌 3:7,8). 그런데 요한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욕망의 사람이었고 다들지지 않은 거친 풀이었다(마 3:17 ; 눅 9:54). 처음에 그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복음과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다(딤후 2:4 ; 요 3:16). 이런 그는 예수님을 새롭게 빚으시고 다듬어 가셨다(마 10:45 ; 요일 4:10 ; 사 53:5,6). 결국 요한은 사랑의 사도, 참된 제자가 되었다(요 13:34,35 ; 요일 3:18, 4:8,11). 그는 요한복음, 요한 1·2·3사,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처럼 요한은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제임을 기다리는 성도 중의 성도였다(계 22:20).

**5. 빌립**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같이 벰새다 출신으로 어부였다(요 1:44).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그 즉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요 1:43, 45,46). 그러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빌립의 성격이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빌립은 항상 계산적이었으며 눈에 보이는 것을 신봉했다(요 6:5-7, 14:7,8). 예수님께서는 빌립도 참된 제자로 빛이갓겼다(요 6:13, 14:9) 결국 빌립은 변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변화된 그의 믿음으로 인해 이방선교에 대한 첫문이 열렸다.(요 12:20-22).

**6. 바돌로매(나다나엘)** 바돌로매는 갈릴리 가나 출신으로 나다나엘로도 불렸다. 그는 친구 빌립의 전도로 믿음의 문에 개되었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었다(요 1:45-49, 21:2). 제자가 된 바돌로매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다(행 1:13)

**7. 도마(디두오)** 도마는 갈릴리 출신으로 디두모라고도 불렸다(요 21:2). 도마

아말로 의심의 사람이었고 회의주의자였다. 그는 한 때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의심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요 11:16). 도마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했지만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결국 의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말았다(요 20:24,25).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악한 도마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주셨고 그를 완전히 바꾸셨다. 의심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이 되었다(요 20:26-29).

**8. 마태** 알패오의 아들 마태는 가버나움 사람으로서 세리였으며 레위라고도 불렸다(마 9:9 ; 막 2:14). 마태아말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부르시고 새롭게 빚어 사용하셨다(고전 1:26,27). 마태는 제자가 된 후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마 9:10). 그러나 마태 역시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고 끊임없이 이끌어 주셨다(마 26:56b ; 요 13:1). 마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는 영광을 누렸다.

**9.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작은 야고보)**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마 10:3 ; 막 3:18 ; 눅 6:15).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 타락함에 모여 성령강림을 기다리던 제자들 속에도 있었다(행 1:13). 작은 야고보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복음을 전했던 겸손한 제자였다(막 10:43-45)

**10. 다대오(유다)** 다대오는 작은 야고보(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의 아들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다대오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유다로 나온다(마 10:3 ; 막 3:18 ; 눅 6:16). 다대오 역시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자로 생각했다. 이처럼 다대오도 처음에는 형편없는 죄인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그도 변화시켜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만드셨다.

**11. 가나안인 시몬(셀롯인 시몬)** 시몬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셀롯인 시몬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다(마 10:4 ; 눅 6:15). 시몬은 무력으로 독립을 얻으려는 열심당한 출신이었다. 열심당한 출신임을 미루어보건 그는 매우 정치적이고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극단적이고 과격한 정치 노선과 사상을 가진 자들도 제자로 부르셨다(마 15:16).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시몬은 앞길 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막 16:15).

**12.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요 6:71). 그러나 그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했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들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악한 자가 되었다(마 26:14-16 ; 요 12:4-6 ; 눅 22:47,48). 그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도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였고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했다(마 27:5). 그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마 26:24).

열두 제자들은 한결같이 매우 형편없는 죄인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말씀들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 제자들은 변화된 후 평생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로 14:8). 이처럼 열두 제자는 은총을 입은 죄인들이었다.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해야 한다. 매순간 진심으로 회개(마 4:17)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마 16:14,24). 이렇듯 우리도 열두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은총으로 새롭게 빚어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악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열두 제자를 복음을 위한 참 제자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자!

### 제3차 청지기 훈련을 기대하며

## 비운 그릇에 넘치는 채움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다. 그래서 '왜 따로 청지기 훈련을 받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조금씩 청지기 훈련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그것이 나의 본분과 사명임을 알게 되었다. '청지기'란 자기의 재산이나 직업, 직분 등이 모두 자기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의 것을 지키며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그야말로 '지킴이'의 역할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즉,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사는 삶,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청지기임을 깨달으며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청지기 훈련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지난 청지기 훈련 말씀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이었

우리 교회에서 청지기 훈련을 접하기 전 청지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비유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죄인인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였다. '나의 삶은 어떠한가? 매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일출로만 주님을 따르다고 고백하며 실상은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것을 위해 아등바등 살지는 않는가? 또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낙망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러한 말씀 앞에 나는 매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한다. 또한 예수님의 끈을 놓치지 않게 기도로 호흡을 하며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전신갑옷을 입길 원한다. 나의 대적자! 주인이신 예수님의 입재와 내 심령 깊숙이 임하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함으로써 청지기 훈련을 준비하고자 한다. 그 전에 내 안에 여러 모양의 주인으로 자리 잡은 다른 것들을 회개하며 비우길 원한다. '비운 그릇에 넘치는 채움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번 청지기 훈련을 통해서 나의 낙망한 영혼이 연단되고 값없는 심령이 채워지길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순간적 감정의 요동이 아닌 십자가 안에서 깨달음과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기도한다. 10월 27일, 그날이 기대된다!

최종훈(집사, 청년1부)

## 피력자 교육을 마치고

'지난 9월 30일(토), 중앙 예배를 끝으로 피력장으로, 피력안수집사, 피력권사 교육이 끝났다.

면접 및 고시(14일)까지의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모든 피력자들은 오히려 보람의 은총으로 기쁨이 가득했다.

### ◆ 믿음으로 살리라!

피력권사로 결정되었다는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 없는 죄인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뿐,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인이자 결핍함이 되기도 하며 연약한 질그릇 속에 담은 믿음인데 이 믿을 가지고 어떻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좀 더 신앙이 성숙한 후에 아니 남편의 건강이 회복된 후에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주님은 마음의 평안과 감사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짧지 않은 훈련은 저를 더욱 정금처럼 단련시켰습니다. 매주 토요일 두 시간 기쁨의 훈련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안구 건조증'으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내게 성경 일독과 책 세 권을 읽어 독후감을 써야 하는 일은 태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총을 베풀어주셨고 쉽지 않은 일이 분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성경을 50~60장, 70~80장을 읽어도 눈이 아프질 않았고, 책을 펼쳐들면 1/3씩 읽어 가더니 분명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의 교육 기간을 통해서 더욱 십자가의 일꾼으로 단련시킨 예수님께 저는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무로 불려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 10:38). 아멘.

김영구(도태권사, 3교구)

### ◆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물, 그리고 길고 지루한 여름이 시작될 때 우리의 교육도 시작되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면서 신성한 긴장감과 각으로 인해 참조의 순수함을 경험하면서 교육이 있었다. 교육에 임하는 모든 피력자들의 순수한 모습을 통하여 그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져 있음을 본다. 참으로 삶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린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 마음은 평화와 넘치고 영에는 늘 찬송이 있다. 48명 모두에게는 교육을 통한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 무언의 눈짓이나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로 파자 내리는 손, 손과 손의 맞잡은 체온의 흐름으로 비로소 하나되는 기쁨과 아름(교육 중 고인이 되신 고재훈 집사님)을 가슴과 가슴, 마음과 마음으로 맞대며 하나가 되었던 벅차고도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

이제 다시 한 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현역을 내내 뜨거운 자연과 씨름하며 풍요의 가을을 맞이하듯 나도 십자가로 풍성한 믿음의 길을 가야한다고 다짐한다. 그러하면 그 길은 어쩌면 무수한 난관을 통과해야 하며 때로는 좌절과 사탄 앞에 쓰러지고 넘어져 피투성이가 되는 과정을 지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패배의 쓰러린 감을 견낼 때도 있을 것이며 막대한 골목에서 서서 아무런 기다려도 길이 안 열리는 경험도 할 것이며 평안 속에서 안전함을 주시길

다 더 큰 시련을 넘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임을 알고 나는 더욱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오 주님, 여기까지 이르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어떠한 고분보다도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우리들의 열매를 주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만 찬송하며 이길 거라다. 주께서 이미 승리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 내게 승리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박찬욱(도태안수집사, 12교구)

### ◆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가롯 유다를 향하여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 하였더라면 재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마 26:24; 막 14:21)라고 한 말씀이 지금도 저의 것기에 맴돌면서 주님과 여러 성도로부터 '너는 차라리 장로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책망을 들을 것 같아서 참으로 두려울 뻔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항상 저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마 16:24)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라는 말씀을 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셔서 피력자 교육 기간 동안에도 순간순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이 앞서려고 할 때에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라(마 16:24)는 말씀이 생각나서 '주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큰 축복이라 생각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고기잡이 전문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 5:4)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되어 놀라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눅 5:8)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매순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내 뒤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름 받은 청지기로서 온전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장로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복음의 확신을 가진 일꾼, 복음을 함당하게 사는 일꾼, 복음을 위해 고난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말기론자들에게 주창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앞 무리의 분이 되라'(행전 5:3)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마음에 깊이 각인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며 흠이 많은 죄인 중에 죄인인 저에게는 진정 이 길 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시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임복섭(임태장로, 6교구)

##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 선교지에서 만난 베드로와 수가성 여인

이 죄인을 십자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팀원 모두가 서로 화합하여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준비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내리쬐는 드넓은 초원에서 한가로이 양떼를 돌보는 목동에게 다가가 '예수'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불쌍한 영혼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어느 마을에서는 집안 일을 돕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가던 두 명의 중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꼭 돌려 주기를 권하며 전도지를 몇 장 더 쥐어 주었을 때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를 표하며 리어카를 버리고 친구를 찾아 나서서 모습을 보여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물가에서 소에게 물을 먹던 여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했으나 그녀는 글씨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눌한 정도 언어였지만 여러 번 반복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까지 마친 후 물 아살 때 내 마음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세상의 목마른 물이 아니라 영생의 생수를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이 때로는 어린이이조차도 복음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그 눈빛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으로써 더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순간 순간 어려운 위기에 있었지만 팀원이 하나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작은 달란트들이 모여서 주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백낙민(집사, 9교구)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2335 | 박원희   | 6  | 장년2부 | 김영숙(9)  | 2347 | 이귀영 | 19 | 대학부  | 배은경(19) |
| 2336 | 사리마버지 | 19 | 외선부  |         | 2348 | 배주미 | 3  | 청년2부 | 송미경(3)  |
| 2337 | 이덕호   | 1  | 장년2부 | 권 철(9)  | 2349 | 손경애 | 19 | 청년1부 | 허미재(18) |
| 2338 | 김 현   | 19 | 대학부  | 한영준(1)  | 2350 | 이은혜 | 13 | 청년1부 | 전영희(13) |
| 2339 | 한주현   | 19 | 청년1부 | 김규석(6)  | 2351 | 황미선 | 19 | 청년1부 |         |
| 2340 | 김금록   | 8  | 장년3부 | 오수목(17) | 2352 | 황인우 | 19 | 청년1부 |         |
| 2341 | 전영미   | 14 | 청년2부 | 김아현(14) | 2353 | 박리나 | 19 | 외선부  | 나영실(12) |
| 2342 | 이정민   | 1  | 청년2부 | 류홍희(1)  | 2354 | 손상만 | 8  | 장년1부 | 김태욱(9)  |
| 2343 | 서승연   | 19 | 청년1부 | 김예소(19) | 2355 | 도상준 | 1  | 소양부  | 강 옥(1)  |
| 2344 | 김하아   | 19 | 청년1부 | 김예소(19) | 2356 | 김병복 | 18 | 소양부  | 손옥희(18) |
| 2345 | 김형재   | 19 | 대학부  | 김신영(9)  | 2357 | 김영진 | 3  | 청년2부 | 전영희(13) |
| 2346 | 이현목   | 6  | 장년2부 | 이진규(6)  |      |     |    |      |         |

※ 중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 기 간                    | 팀        | 팀 장 | 기 간                    | 팀       | 팀 장 |
|------------------------|----------|-----|------------------------|---------|-----|
| 10월 2일(월) - 10월 10일(월) | 임마누엘 전양대 | 안준호 | 10월 3일(화) - 10월 10일(화) | 청년2부 3팀 | 양기수 |

##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 죄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 직장 동료의 전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애매와 집회에 참석하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 앞에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살피 주시며 제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는 편만인 친구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만 사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소중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모시게 된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장환)

♥ 아들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항상 제 마음에 살아계셔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란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우물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방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됩니다. (김미숙)

♥ 우연히 음악적에서 만난 중천교회 교민의 전도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삶에 큰 힘이 되었고,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말로 형용 못 할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김정순)

♥ 중천교회에 다니는 언니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이교 교리로 오게 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준옥)

♥ 성악공부를 위해서 대구에서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도 교회를 다녔지만, 이곳에서 참

생명의 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이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평생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어 지더라도 더욱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성악공부를 예수님을 위한 공부이니 더욱 성실이 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박소경)

♥ 엄마가 "교회에 가자"고 해도 별 관심이 없었지만 외국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 때 내 도 모르게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귀국한 뒤 소스로 중천교회에 오게 되었고 새가족부에 등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유미)

♥ 항상 교회 주변을 지나 다니면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저를 중천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통해서 저의 고난을 깨뜨리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고집을 꺾으시고 누워있고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서성애)

♥ 등록을 하지 않고 조용히 주일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집회 참석을 권유받았고 새가족 양육부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보람에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자비하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현재 저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노경선)

(정리: 편집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회 3.4지회 월례회  
일시: 18일(수), 1부 예배 후.  
장소: 갈릴리움

별 세

1. 한성인 성도(장철형: 성도의 부인, 장제영: 장제호 성도의 모친, 3교구 대치3구역) / 9월 28일 별세, 9월 30일 장례
2. 나목신 타고관사(윤정희 권사의 모친, 오우일 집사의 장모, 12교구 상산구역) / 9월 30일 별세, 10월 2일 장례
3. 박종래 성도(유은순 권사·윤순희 집사의 모친, 안국교회 장모: 지규상 안수집사의 장모, 16교구 평촌2구역, 6교구) / 9월 30일 별세, 10월 2일 장례
4. 김준호 성도(강승연 은희사의 남편, 김재형 집사의 부친, 11교구 평촌구역, 10교구) / 2일 별세, 4일 장례

5. 백남환 성도(백계홍 집사의 부친, 윤진우 집사의 사부, 9교구 전동구역) / 8일 별세, 10일 장례

6. 이계영 씨(이화희 성도의 부친, 박애리 집사의 사부, 9교구 이문구역) / 9일 별세, 11일 장례

주 소 변 경

1. 오연근 은희 안수집사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대림아파트 724-1501(16교구)

교회 직원 모집

- 1.모임부문 음향 엔지니어(남)  
전공자 우대
- 2.자 격 세례교인 (81년 이후 출생자)
- 3.제출서류 자필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 4.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203)

충원기도원 촉탁 직원 모집

- 1.모임부문 충원기도원 주방 (여)
- 2.자 격 세례교인 (만60세 이하)
- 3.제출서류 자필이력서 · 주민등록등본  
등하직장추천서(타교인)
- 4.서류제출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 031-766-5425

임직예배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일 시: 10월 25일(수) 저녁 7시

장 소: 충원교회 본당

2006년도 제5차 학습 · 세례식 안내

| 날짜              | 시간                 | 학습자                   | 장소                |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 장소                | 유아세례자               | 장소       |
|-----------------|--------------------|-----------------------|-------------------|------------------|-------------------|---------------------|----------|
| 10월 15일 (오늘)    | 1교시<br>15:00~15:50 | 기독교개요<br>(김준호 목사)     | 교육관 300호          | 세례관?<br>(최성규 목사) | 교육관 300호          | 유아 세례관?<br>(안치원 목사) | 교육관 300호 |
|                 | 2교시<br>16:00~16:40 | 문 답                   | 교구별<br>장소         | 문 답              | 교구별<br>장소         |                     |          |
| 10월 22일 (다음 주일) | 찬양예배               | 성인 학습 · 세례식(찬양예배, 본당) |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 유 아 세례식          |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 바람 |                     |          |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         | 16(월)   | 17(화)   | 18(수)   | 19(목)   | 20(금)   | 21(토)   | 22(주일)  |
|---------|---------|---------|---------|---------|---------|---------|---------|
|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강철형 | 이종대/김홍기 | 정현민/이성섭 | 류병희/조중덕 | 여국근/강태영 | 안창덕/윤인숙 | 임현덕/한영준 |

예배담당 안내 (10/18-10/22)

| 날짜           | 예배  | 설 교                         | 사 회 기 도 | 찬 양                                       |
|--------------|-----|-----------------------------|---------|-------------------------------------------|
| 10/18 수요일    | I   | 그분은? (사 32:1-4) 김성관 목사      | 정현민 박규식 | 협한 시편 106 속에서 (호산나 찬양대)                   |
| 10/18 수요일    | II  | 성령의 간구 (롬 8:26-28) 이재영 목사   | 정성원 김부영 | 내 마음 주께 바칩니다 (실로암 찬양대)                    |
| 10/20 금요일    | III | 김성관 목사 / 피택자로 주재 발표         | 이희식     | 테니 김원식                                    |
| 10/22 주일 I   |     | 통성한 추수 (눅 10:1-3) 장 훈 목사    | 전성원 김영은 | (예배 전 찬양)                                 |
| 10/22 주일 II  |     | 통성한 추수 (눅 10:1-3) 이희식 목사    | 나광영 장철환 |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외 / 비어있던 장면회 (전반 연주)       |
| 10/22 주일 III |     | 통성한 추수 (눅 10:1-3) 김성관 목사    | 양재웅 김규식 | 섬돌과 같은 보혈은 외 / 할로 인턴 (행렬파 찬양대 솔로리스트)      |
| 10/22 주일 IV  |     | 통성한 추수 (눅 10:1-3) 김익환 목사    | 이성진 이달용 | 목마른 자들이 외 / 테니 김원우 (행렬 찬양대 솔로리스트)         |
| 10/22 주일 V   |     | 통성한 추수 (눅 10:1-3) 이재영 목사    | 김재식 전홍용 | 우리가 지금은 니그제 워드 외 / 소프라노 김원우(행렬 찬양대 솔로리스트) |
| 10/22 주일찬양   |     | 죽음을 준비하자 (왕하 20:1-7) 김성관 목사 | 임현덕 김준진 | 사랑부 중창단 / 예배마루 / 임마누엘 찬양대                 |

예배 및 집회 안내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오전 7:00                        | 본 당 |
|         | II 오전 9:00                       | 본 당 |
|         | III 오전 11:00<br>(수화, 외국어 동시통역예배) | 본 당 |
|         |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예배             | 본 당 |
|         | V 오후 3:00<br>(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 본 당 |
| 찬양예배    | 오후 5:00                          | 본 당 |
| 수요예배    | I 오전 11:00 II 저녁 7:00            | 본 당 |
| 금요일집회   | 저녁 7:00                          | 본 당 |
| 새벽기도회   | 새벽 5:00                          | 본 당 |

기도원 집회 안내

| 구 분  | 시 간      | 차 량                  |
|------|----------|----------------------|
| 최요집회 | 오전 11:00 |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
| 금요찬양 | 저녁 10:30 | 금요일 저녁 10:00 본당 앞 출발 |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중국어, 일본어 외 수화본,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t. Luki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영 아 부  | I 오전 9:00   | 신교관 1층   |
|        | II 오전 11:00 |          |
| 유 아 부  | 오전 10:50    | 교육관 201호 |
| 유 치 부  | 오전 10:50    | 교육관 207호 |
| 유 소 부  | 오전 10:30    | 교육관 307호 |
| 초 등 부  | 오전 10:30    | 교육관 407호 |
| 소 년 부  | 오전 10:30    | 교육관 507호 |
| 중 등 1부 | 오전 9:00     | 교육관 301호 |
| 중 등 2부 | 오전 9:00     | 교육관 401호 |
| 중 등 3부 | 오전 9:00     | 교육관 501호 |
| 고 등 부  | 오전 11:00    | 제2교육관 4층 |
| 대 학 부  | (토) 오후 2:00 | 제2교육관 4층 |
| 청 년 1부 | (토) 오후 5:30 | 제2교육관 4층 |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청 년 2부   | 오후 12:15                             | 제2교육관 2층   |
| 장 년 1부   | 오후 12:30                             | 교육관 507호   |
| 장 년 2부   | 오후 12:30                             | 교육관 407호   |
| 장 년 3부   | 오후 12:30                             | 교육관 307호   |
| 소 방 부    | 오후 12:15                             | 갈릴리움       |
| 사 랑 부    | 오전 11:00                             | 복자관 지하1층   |
| 예배마루     | 오전 9:00(학생)<br>오후 1:00(성인)           | 제2교육관 1층   |
| 대 학 부    | (화) 오전 8:30~8:40<br>(금) 저녁 6:30~6:40 | 제2교육관 110호 |
| 새가족양육부   | 오후 12:15                             | 메다니 홀      |
| 충원인민이집   | 주간교육                                 | 교육관 107호   |
| 정신장애인교육  | 주간교육                                 | 충원복지관      |
| 국회국립국립교부 | 오전 11:00                             | 아 엔 홀      |

10월 충원 기도회 의 창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삼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시며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제3차 정기 회헌(00월 27일) 긴급집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구원의 은수를 베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소서.
- ③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 ④ 1·1·1 천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 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되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을 안에서 살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원복지관이 삼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봉사 · 복지)을 삼자가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사무장

김의철 김은호 노광민 이병하 이 훈  
김기원 김기원 최무길 이창호 차신복  
남신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신복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여국근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고희철 위헌당  
김익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종철

■ 전도사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김말자 안태준 김경민 강덕희 최문식  
전은희 김장자 김경희 이복춘 류진희  
한성일 김장자 강영미 옥미자 이복춘

■ 찬양감독

김정희 서문성 김원섭  
김정희 김소연 ■ 전담연주자 장인희  
■ 신 교 사 송요한